영화를 이용한 다단어 표현(Multi-word Expressions) 자각력 향상 연구*

김 영 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Kim, Young Kwang. (2021). How to enhance awareness of multi-word expressions through movies. *STEM Journal*, 22(1), 39-6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a) to describe how to identify English multiword expressions (MWEs) according to the current literature, and (b) to suggest a way for EFL college-level students to enhance their awareness of multi-word expressions through movies. To do this, episode 5 from the miniseries *The Bible* was chosen as material. Two college students with advanced English volunteered for this experiment, which consisted of 6 stages. In the first stage, subjects were instructed to select their favorite phrases or expressions. In the successive three stages their favorite phrases were analyzed. In the fifth stage, they identified MWEs. In the last stage, they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showed 62 favorite phrases in the first stage increased to 81 MWEs in the fifth stage. The results also showed they gave their teacher a real insight into MWEs in the figurative category of the fifth stage. In the interview, subject A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WEs but did not agree with the training about how to identify MWEs. Subject B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WEs and approved of the training in how to recognize MWEs. Though having different opinions about how to approach MWEs, they had one view in common: MWEs should be learned.

I. 서론

언어 발달과정에서 다단어 표현(multi-word expressions: MWEs)¹은 언어학습에서 중요한 블록(building block)이라고 한다. 말하고 듣고 언어를 학습할 때, MWEs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Arnon & Christiansen, 2017). 이것은 L2를 배울

* 본 연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2020 년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¹ Siyanova-Chanturia(2017)는 MWEs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MWEs 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집들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3 개의 논문집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Language Teaching Research* (2015, vol. 19, issue 6; 2017, vol. 21, issue 1)이고 두 번째는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012, vol. 32),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Mental Lexicon* (2014, vol. 9, issue 3)이다.

때도 예외는 아니다. Wray(2000)는 L2를 잘 배우기 위해서 원어민들이 선호하는 단어들의 배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원어민이 선호하는 단어의 배열이 MWEs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어는 본질적으로 정형화(formulaic)²가 되어 있다(Paquot & Granger, 2012).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언어가 고정되었다는 뜻이다. 즉, 언어는 고정적인 표현을 암기하면서 언어발달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MWEs는 중요하다. 또한 MWEs의 학습은 원어민과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를 학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Corrigan, Moravcsik, Ouali, & Wheatley, 2009a, 2009b; Wray, 2013).

개별적인 단어 수와 MWEs 수를 비교하면, 개별적인 단어 수만큼 MWEs의 수도 많다(Erman & Warren, 2000; Foster, 2001; Nattinger & DeCarrico, 1992; Sag, Baldwin, Bond, Copestake, & Flickinger, 2002). 특히, Sag 등(2002)은 MWEs는 분야마다 새로운 MWEs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MWEs 수는 매우 많을 것이라 하였다.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MWEs를 배우는 것은 영어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 MWEs를 안다는 것은 기타를 연주할 때 코드를 아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코드를 배우면,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즉, 노래에 맞추어 기타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어에서 MWEs의 비중이 높아지면, 언어의 사용을 빠르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실에서 MWEs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MWEs를 가르치는 방법과 적절한 교재를 소개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는 교실에서 대학생들에게 MWEs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이다. 대학생들에게 MWEs의 중요성은 쉽게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MWEs 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활동이 될 것이다. 교양 영어 수업에서 MWEs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고, 그들의 마음에 들지는 미지수이다. 이것은 교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³, 교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반대로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를 교재로 선택하였다⁴. 영화를 교재로 선택한 이유는 영화는 다른 교재들보다는 덜 지루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

²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MWEs 는 Wray(2013)가 사용하는 'formulaic sequences'와 같은 의미이고 용어만 다를 뿐이다(Kerz, Heilmann, & Neumann, 2019).

³ 객관적인 문헌의 증거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⁴ 본 연구에서 언급된 영화는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다.

II. 문헌 조사

1. MWEs의 정의 및 자질

학생들은 외국어를 배우면서, 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원어민처럼 세련된 표현과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MWEs를 사용하고 싶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Wray(2002)는 MWEs를 일종의 선호하는 표현 선택이라고 했다. 선호하는 표현 선택이 원어민들의 말을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Wahl과 Gries(2018)는 원어민들이 단어 레벨의 의미와 문법을 기초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이용하고, 문법보다는 단어들이 속해 있는 대화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하여 MWEs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MWEs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Gries(2008)는 어떤 학자들은 비 합성적(non-compositional)인 기준이 정의를 내리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Hüning과 Schlücker(2015)도 많은 MWEs에서 비 합성적 또는 관용적인 의미가 타당한 것은 맞지만, 비 합성적 또는 관용적인 기준이 MWEs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MWEs의 자질을 이해하면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MWEs의 자질에 대해서는 Hüning과 Schlücker(2015)가 기술을 잘하고 있지만, 유럽 전체 언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너무 방대한 것이 결함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기술한 내용 중에서 영어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설명하려고 한다. Hüning과 Schlücker(2015)가 제시한 세 가지 자질은 첫째, MWEs는 하나의 단어와 같은 어휘 단위(lexical units)라고 한다. 즉, 말을 할 때 또는 언어를 사용할 때 MWEs가 하나의 단어처럼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둘째, 비 합성적 의미가 MWEs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기준은 되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Nunberg, Sag와 Wasow(1994, p. 491)는 “pull strings”는 관용구이지만, 성분인 ‘pull’이나 ‘strings’에서 전체 뜻인 ‘영향력을 행사하다’를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Hüning과 Schlücker(2015)는 1)분석이 전혀 되지 않는 MWEs(예, red herring)⁵, 2)분석은 되지만 관용적 의미를 가진 MWEs(예, black market)⁶, 3)완전히 합성되고 관용적 성질이 없는 MWEs(예, fish and chips)⁷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전통적으로 MWEs는 통사적으로 고정된 표현이라고

⁵ ‘Red herring’은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red’와 ‘herring’에서 뜻을 찾아낼 수가 없다.

⁶ ‘Black market’은 ‘black’은 관용적 의미를 담고 있으나, ‘market’은 사전적 의미이다.

⁷ ‘Fish and chips’는 관용적 의미는 전혀 없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관습적으로 ‘fish and chips’라고 사용하지만, ‘chips and fish’라고 하지 않는다.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의 합성 정도와 관련이 지어서 통사적 고정도 하나의 선상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Fellbaum, 2011).

MWEs의 정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용어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MW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MWEs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다양하다. Wray(2002)는 50개가 넘는 용어들을 소개하면서⁸ 자신도 MWEs를 대신하여 ‘formulaic sequence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MWEs를 둘로 나눈 연구도 있었다(Tanabe, Takahashi, & Shudo, 2014). 이 연구에서 MWEs를 관용적 성질(idiomatcity)을 가진 것과 성분 단어들 사이에서 강한 유대감(strong probabilistic affinity)을 가진 것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의 정의는 Tanabe 등(2014)의 정리를 사용할 것이다. 단어가 2개 이상이 합쳐진 것으로 관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용적 성질이 없으나 습관상 함께 사용하는 것들을 MWEs로 간주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밤 낮’이라고 하지만 ‘낮 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의 순서는 일종의 습관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비록 관용적 성질은 없지만, 단어 사이의 순서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MWEs로 처리할 것이다.

2. MWEs 자격

Baldwin과 Kim(2010)은 어떤 형태가 MWEs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Taking the example of the verb particle construction look up (in the sense of “seek information from,” as in Kim looked the word up in the dictionary), we first observe that it is made up of multiple words (look and up), and thus satisfies the first requirement in our MWE definition. In terms of idiomatcity: (1) it is not lexically idiomatcity, as both look and up are part of the standard English lexicon; (2) while it has peculiar syntax relative to its component words, in up being separable from look, this is a general property of transitive verb particle constructions [...] rather than this particular word combination, so it is not syntactically idiomatcity; (3) it is semantically idiomatcity, as the semantics of “seek information from” is not predictable from the standard semantics of look and up; (4) it is not pragmatically idiomatcity, as it does not generally evoke a particular situation; and (5) it is statistically marked, as it contrasts with anti-collocations such as *see/watch up* and is a relatively frequent expression in English. That is, it is semantically and statistically

⁸ Wahl과 Gries(2018)는 Wray(2002)가 60개 용어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60개 용어도 전부는 아니라고 하였다.

idiomatic; in combination with its multiword composition, this is sufficient to classify it as an MWE (pp. 272-273).

Baldwin과 Kim(2010)은 언어 형태가 두 개 이상의 어휘소로 되어 있고 동시에 관용적 성질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정의로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관용적 성질을 5개로 나누었다.

Baldwin과 Kim(2010)은 동사-불변화사 구문 ‘look up’을 통하여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look up’은 5개의 성질 중 의미적, 통계적으로 관용적 성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MWEs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Sag 등(2002)도 MWEs가 갖는 관용적 성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생성문법에서 강조하는 문법의 규칙성과 참 조건(truth-condition)에 맞는 단어 의미는 MWEs를 처리할 수가 없다. 이것은 MWEs 관용적 성질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MWE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적인 성질을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Baldwin과 Kim(2010)은 관용적 성질을 어휘적인 관용적 성질(lexical idiomaticity), 통사적인 관용적 성질(syntactic idiomaticity), 의미적인 관용적 성질(semantic idiomaticity), 화용론적인 관용적 성질(pragmatic idiomaticity), 그리고 통계적인 관용적 성질(statistical idiomaticity)로 나누었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각각의 성질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어휘적인 관용적 성질에서는 ‘ad hoc’을 소개한다. 영어에서는 ‘ad’와 ‘hoc’은 개별적 단어가 아니다. 따라서 ‘ad hoc’은 어휘적으로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인 관용적 성질에서는 ‘by and large’를 소개한다. 이 형태는 성질상 부사에 속하는데 오히려 전치사와 형용사로 소개를 하였다. 의미적 관용적 성질에서는 ‘middle of the road’을 소개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도’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나 ‘middle of the road’에서는 그 뜻을 예측할 수 없다. 화용론적인 관용적 성질에서는 ‘all aboard’를 소개한다. 이 표현을 보면 특정한 상황이 떠오른다. 그러나 개별적 단어의 의미에서는 이런 문맥이나 상황을 연상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은 통계적인 관용적 성질이다. 이것은 관용적 성질은 없으나,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언어 형태들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black and white’라고는 해도 ‘white and black’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주 사용하여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3. MWEs 분류

MWEs 분류하는 과정에서 언어학적인 관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Laporte(2018)는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를 관련하여 언어학적인 요소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MWEs를 쉽게 가르치려는 부분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Laporte(2018)의 주장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MWEs는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Biber, Conrad, & Cortes, 2004; Erman & Warren, 2000; Foster, 2001). 그래서 MWEs를 교실에서 배우고 언급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Jackendoff(1997)는 미국 텔레비전 쇼 *Wheel of Fortune*(Griffin, 1975-2019)⁹에서 사용되는 MWEs를 조사했다. 조사된 발화의 절반 정도가 MWEs였다. Cowie(1998)는 새로운 이야기나 특집 기사에서 동사구 관용구(verb phrase idioms)와 연어들의 비율을 조사했다. 그 중에 약 40% 정도가 MWEs였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EFL 교실에서 MWEs 학습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Sag 외 4인(2002, pp. 3-8)은 MWEs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이들은 MWEs 종류를 고정표현(fixed expressions), 반-고정표현(semi-fixed expressions)¹⁰, 통사적으로 융통성 있는 표현(syntactically-flexible expressions)¹¹, 그리고 제도화된 구(institutionalized phrases)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표 1).

표 1

Sag 외 4인(2002)의 MWEs 분류

분류	MWEs
고정표현	· by and large, in short, kingdom come, every which way → 고정표현 → 완전 관용구
반-고정표현	· kick the bucket, trip the light fantastic, shoot the breeze → 분석 불가 관용구(non-decomposable idioms) → 굴절이 허용되므로 완전 관용구는 아니다 · car park, attorney general, part of speech → 복합 명사구(compound nominals) → 복수 어미가 붙으므로 완전 관용구는 아니다. · San Francisco, 49ers → 고유 명칭
통사적으로 융통성 있는 표현	· write up, look up, brush up on → 동사-불변화사 구문 · let the cat out of the bag, sweep under the rug → 분석 가능 관용구 · make a mistake, give a demo → 경동사 ¹²
제도화된 구	· traffic light, telephone booth, fresh air, kindle excitement → 제도화구

⁹ *Wheel of Fortune*은 1975년 Merv Griffin이 만든 게임 쇼이다. 처음에는 NBC에서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오전 시간 시리즈로 방영되었다. 이후 CBS에서 2년간 방영되고 다시 NBC로 돌아왔다. 그러나 1991년 9월 20일 방영이 취소되었다("Wheel of Fortune," n.d.)

¹⁰ 반-고정표현은 3가지로 나눈다. 분석 불가 관용구(non-decomposable idioms), 복합 명사구(compound nominals), 고유명칭(proper names)이 있다.

¹¹ 통사적으로 융통성 있는 표현은 3가지로 나눈다. 동사-불변화사 구문(verb-particle constructions), 분석가능 관용구(decomposable idioms), 그리고 경 동사(light verb)가 있다.

¹² 경동사는 까다롭기 때문에 함께 쓰이는 동사로 아무 동사나 오지 못한다. 예를 들면, *do a mistake나 *make a demo는 안된다.

Baldwin과 Kim(2010, pp. 274-275)은 MWEs를 크게 ‘Nominal MWEs’, ‘Verbal MWEs’, 그리고 ‘Prepositional MWEs’로 분류를 했다. 첫 번째는 ‘Nominal MWEs’이다.

- golf club, computer science department¹³: 명사 복합(noun compound)
- investor hesitation, stress avoidance: 복합 명사화(compound nominalization)¹⁴
- connecting flight, hired help, open secret¹⁵: 명사 같은 복합어(nominal compounds)

두 번째는 ‘Verbal MWEs’이다. 이것은 구동사(phrasal verbs), 전치사 동사(prepositional verbs), 경동사 구문(light-verb construction),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verb-noun idiomatic combinations: VNICs)로 나눈다. 먼저, 구동사와 전치사 동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Baldwin, 2005; Baldwin & Kim, 2010). 구동사는 ‘동사+불변화사(particle)’ 패턴으로 되어 있다. 전치사 동사는 ‘동사+전치사’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는 불변화사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후자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를 갖는다. 구동사는 관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로 암기를 해야 한다. 전치사 동사는 의미적 합성이 되어 있다. 또한, 관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play on’은 관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구동사에 들어가지 않고 전치사 동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play on’은 ‘on’ 뒤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구동사가 갖는 관용적 성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성질은 의미적 특이성과 통계적 특이성에서 나온다. 즉, 구동사는 통사적으로 정상적인 단어 순서를 보여준다. 그래서 관용적 성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의미적으로는 구동사는 하나의 단어로 대체가 될 수 있다. 대체된 단어의 의미를 구동사의 동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통계적 특이성은 빈도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동사는 영어에서는 사용되는 빈도가 아주 높은 형태이다. 그래서 통계적 특이성을 가지며, 자동적으로 관용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

¹³ ‘Computer science department’에서 ‘computer science’는 수식어가 되고 ‘department’가 머리 명사(head noun)가 된다

¹⁴ 복합 명사화에서는 머리 명사들이 모두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Hesitation’은 ‘hesitate’에서 ‘avoidance’는 ‘avoid’에서 파생되었다

¹⁵ 수식어가 현재완료, 과거완료, 그리고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Jespersen(1965)은 경동사 구문에서 ‘light verb’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Butt(2010, p. 48)는 ‘light verb’의 예로 “have a rest, take a sneak와 give a sigh”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동사 ‘do’와 ‘make’도 경동사에 들어간다(Baldwin & Kim, 2010). 통사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형태이지만, 동사와 명사 사이의 결합에 제약이 있기에 관용적 성질을 갖추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동사 ‘make’는 ‘an offer’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동사들 “*give/do/put/take an offer”는 함께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Baldwin & Kim, 2010, p. 277).

마지막으로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이다. 형태는 문자 그대로 자주 사용되는 동사와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것을 말한다. 이 결합체는 관용적인 의미와 비관용적인 의미에 모두 사용된다(Fazly, Cook, & Stevenson, 2009).

- 1) The little girl made a funny face at her mother.
 - 2) [The little girl] made a face on the snowman using a carrot and two buttons.
- (p. 63)

1)번 문장에서 ‘make a face’는 ‘짜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2)번 문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얼굴을 만들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관용구가 되고, 후자는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관용구가 될 수 없다.

Baldwin과 Kim(2010, pp. 275-278)이 사용한 예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 play around, take off; cut short, band together; let go, let fly¹⁶: 구 동사
- refer to, look for¹⁷: 전치사 동사
- take a walk, take a photograph: 경동사 구문¹⁸
- kick the bucket, shoot the breeze¹⁹: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
 - spill the beans, pull strings, touch a nerve²⁰: 분석 가능한 VNICs (decomposable VNICs)
 - get the hang (of), kick the bucket: 분석이 불가능한 VNICs(non-decomposable VNICs)

¹⁶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동사+전치사, 동사+형용사, 동사+동사.

¹⁷ 위의 ‘play around’는 뒤에 추가적인 논항(argument)을 요구하지 않지만 ‘refer to’는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한다.

¹⁸ ‘Light verb construction’은 ‘verb-complement pairs’(Tan, Kan, & Cui, 2006) 또는 ‘support verb constructions’(Calzolari 등, 2002)라고도 한다.

¹⁹ 의미적인 관용적 형태들이다.

²⁰ 예를 들면, ‘Spill the beans’에서 ‘spill’은 ‘reveal’의 의미로, ‘beans’는 ‘secret’의 의미로 비유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관용구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Prepositional MWEs’이다. Baldwin과 Kim(2010)은 한정사가 없는 전치사 구(Determinerless-Prepositional Phrases: PP-Ds)와 복잡한 전치사(Complex Prepositions)로 분리를 하였다. Baldwin 등(2006)은 PP-Ds가 ‘전치사+명사 단수’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때, 명사 단수는 한정사가 붙지 않는다. 예를 들면, “at school, in winter, by car”(p. 164)를 보면 ‘전치사+ 명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정사는 붙어 있지 않다. 가산명사들(예, school, winter, car)이 한정사를 포함하지 않고 사용된다는 것을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관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사적으로 PP-Ds는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들은 고정되어 있다. Baldwin 등(2006)은 라틴어에서 온 표현들(예, ex cathedra, ad hominem, ad nauseum)을 소개하였다. 소개된 표현들은 완전히 고정된 표현들이라고 했다. 심지어 현대 지식인들은 이 표현들이 완전 관용구의 고정된 표현으로 인식한다고 했다(Sag 외 4인, 2002). 이와 반대로 PP-Ds가 생산적인 것들도 있다. 전치사 ‘by’가 가산명사와 사용된다면, 생산적인 표현이 된다. 예를 들면, “by car/foot/bus/…” (Baldwin & Kim, 2010, p. 278)와 같은 표현들은 생산적인 표현이다. 전치사 ‘in’도 사회적인 제도를 가리키는 불가산명사와 결합하면 생산적인 표현이 된다. 예를 들면, ‘school, church, prison’ 등이 ‘in’과 만나면 의미적으로 특이한 뜻이 된다(Baldwin 등, 2006). 어떤 상황에서는 생산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고정적인 양상들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용적 성질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번에는 ‘Prepositional MWEs’의 두 번째 그룹인 복잡한 전치사를 살펴보자. Baldwin과 Kim(2010, p. 279)은 “on top of, in addition to” 등을 예로 들었다. ‘on top of’는 고정된 복잡한 전치사이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관용적 성질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Trawinski, Sailer와 Soehn(2006)은 복잡한 전치사구로서 ‘P₁ +N₁ +P₂ +(NP)’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시한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aldwin & Kim, 2010, pp. 278-279).

- on top: 한정사 없는 전치사 구
- by car/foot/bus²¹: PP-D
- at high expense, on summer vacation²²: PP-D
- on top of, in addition to: 복잡한 전치사
- with due/particular/special… regard to²³: 복잡한 전치사

²¹ 1)과 2)를 비교를 하면 전자는 생산성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on bottom’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다른 명사들도 허용이 되어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²² 중간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형태들이다.

²³ 중간에 수식어들이 들어가는 MWEs이다.

III. 사례 연구 디자인

1. 피험자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대학생 두 명이다. 피험자들의 토익 점수는 800점을 상회한다. 본 연구에서는 MWEs를 자각할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800점대의 상급수준으로 B2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피험자로 선택하였다²⁴. 두 명의 피험자들은 영화 대본을 공부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읽기 능력은 대본을 충분히 해석할 정도는 되었다. 피험자 두 명 중 한 명은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한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인 다니엘(Daniel)에 대해서 두 피험자 모두 모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의를 하고 협동하였다.

2. 교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재는 미국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더 바이블(The Bible, Reece, 2013)*이다. 그 중에서 10회 5번째 에피소드 *서바이벌(Survival)*을 택하였다. 읽기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피험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다. *서바이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유다 민족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추방 생활을 한다.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Cyrus) 2세가 유다 민족을 해방시켰다. 이후, 유다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실적인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험자들에게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중동 지방의 이야기들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기독교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피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MWEs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성경과 관련된 상황에서 MWEs의 활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경적 내용을 교재로 선정한 이유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MWEs를 학습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사용되는 ‘Nominal MWEs’와 ‘Prepositional MWEs’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과 비교하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MWEs가 생소하기에 MWEs의 장점을 더 뚜렷하게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²⁴ 토익 점수를 유럽 공통 언어평가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1에서 C1로 나타낼 수 있다. A1이 제일 낮은 것이고 C1이 높은 것이다. 본연구의 피험자들은 토익 점수가 800점대이다. 그래서 피험자들의 수준은 B2에 해당한다(ETS, n.d.).

3. 절차

본 실험은 총 4개월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시간은 한 회당 90분으로 하였다. 총 16회를 진행하면서, 총 7단계의 절차를 가졌다.

첫 번째 단계는 피험자들이 대본을 해석한다. 대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대 유대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Zedekiah)가 바빌론의 왕 느브갓네살(Nebuchadnezzar)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 이집트와 음모를 꾸며 바빌론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그러나 의도가 발각되었고, 느브갓네살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부터 내용이 시작된다. 마지막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Cyrus)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바빌론으로 추방 생활을 하는 유대민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는 피험자들이 대본을 해석하면서 2개 이상의 단어 또는 어휘소를 포함하여 그들이 판단하기에 숙어(idiom)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든다. 이 목록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사건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른 보조자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목록을 만들 때, 피험자들이 상의하여 하나의 목록을 만든다. 피험자들이 단어장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반응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교사가 Baldwin과 Kim(2010)이 제시한 틀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한다. 제시 순서는 ‘Nominal MWEs’, ‘Verbal MWEs’, ‘Prepositional MWEs’이다. 제시하면서 교사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피험자들에게 한다.

네 번째 단계는 피험자들이 각 항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형태들을 주어진 틀에 기록한다. 기록하는 과정에서 Baldwin과 Kim(2010)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형태들은 교사에게 물어보고 ‘기타’로 분류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결과에 대해서 교사와 피험자들이 토론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피험자들은 다시 처음부터 목록을 만든다. 다시 만드는 목록은 피험자들이 처음에 한 것, 교사와 상의를 하여 수정한 것, 그리고 ‘기타’에 넣었던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항목을 만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일곱 번째 단계는 피험자들은 이 과정에서 MWEs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혹은 기타 별도로 배운 것이 있었는지를 교사와 인터뷰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실험 단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단계

단계	내용	대상
1	대본해석	피험자
2	숙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목록으로 만들기	피험자
3	Nominal, Verbal, Prepositional MWES 틀을 소개	교사
4	위의 틀에 적합한 언어형태 넣기	피험자
5	토론	교사와 피험자
6	토론 이후 목록 새로 작성하기	피험자
7	인터뷰를 통해 새로 작성된 목록확인 받기	교사

IV. 결과 및 분석

피험자들이 대본을 읽은 후,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되고 사전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로 총 62개를 선택하였다. 첫 분석에서는 62개 표현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1. 첫 번째 분석: 전체 MWES

피험자들이 제출한 목록에 있는 표현들은 피험자들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표현 또는 ‘숙어’라고 생각한 것들이다. 그래서 피험자들이 제출한 형태들을 MWES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표 3은 피험자들이 제출한 목록을 분류한 것이다.

표 3
피험자들의 목록 분류표

	명사 표현 ²⁵	동사 표현	전치사 표현	기타	합계
표현 개수(%)	0 (0%)	33 (53%)	13 (21%)	16 (26%)	62 (100%)

먼저, 명사와 관련된 표현은 0%이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피험자들이 영어학습을 통하여 명사와 관련된 숙어적 표현들은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동사 표현은 50%가 넘었다. 동사 표현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언어에서 동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험자들이 영어학습에서 동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하는 구문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험자들의 영어 능력을

²⁵ 명사 표현은 명사로 시작하는 표현을 줄인 것이다. 나머지 표현들도 마찬가지이다. 피험자들이 처음에는 MWES의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대신한 것이다.

고려하면, 전치사로 시작하는 구문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항목에도 넣을 수 없는 기타 표현들은 동사 표현 다음으로 많았다. 그래서 Baldwin과 Kim(2010)의 틀이 학습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Bauer(2019)와 Sag 외 4인(2002)의 틀을 보조로 활용할 것이다.

2. 두 번째 분석: Verbal MWEs

두 번째 분석부터 피험자들이 제출한 표현목록들을 Baldwin과 Kim(2010)이 제시한 MWEs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Verbal MWEs는 구동사, 전치사 동사, 경동사,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로 나뉜다. 제출된 33개 동사 표현목록을 Baldwin과 Kim(2010)의 틀에 맞추었다. 문헌 조사에서 보여준 예시들을 중심으로 피험자들과 교사가 함께 만들었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동사 표현 분석

	구동사	전치사 동사	경동사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	기타	합계
표현 개수 (%)	11 (33.1%)	2 (6%)	0 (0%)	8 (24.2%)	12 (36.4%)	33 (99%)

피험자들은 쉽게 Verbal MWEs를 구분하였다. 특히, 구동사와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를 쉽게 찾았다. 피험자들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대로 ‘숙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에 12개 표현이 들어갔다. 이는 3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 부분이 Baldwin과 Kim(2010)의 틀로 판단하기 어려운 MWEs이다. 12개 중 7개가 모두 관용구였다. 그러나 Baldwin과 Kim(2010)이 제시한 틀에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다.

먼저, 구동사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동사+필수 불변화사(obligatory particle)’, ‘동사+형용사’, ‘동사+동사’ 패턴이 있다. 구동사 11개 중에서 ‘동사+필수 불변화사’는 10개, ‘동사+형용사’는 1개였다. ‘동사+동사’ 구문은 없었다. 이것을 통하여 영어에는 ‘동사+불변화사’ 구동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치사 동사도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지만, 피험자들은 대본에서 2개만 찾았다.

경동사는 하나도 없었다. Shomoossi와 Shomoossi(2012)는 ‘take a nap’을 경동사의 예로 들었다. 이 경동사 구문의 가장 큰 느낌은 ‘take’에 있지 않고 ‘nap’이라고 했다. Baldwin과 Kim(2010)도 이런 경향 때문에 경동사보다는 명사화된 동사를 동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take a walk’에서 ‘walk’를 동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를 살펴보면, 이것은 통사적으로는 정상적인 구문이고 의미적으로는 관용적 성질을 갖는 구문이다. 예를 들면, “hit the ceiling”, “lose one’s head”(Fellbaum, 2011, p. 443) 등은 통사적으로 정상적이다. 또한, 의미적으로 관용구가 된다. 피험자들은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8개를 골랐다. 33개 동사 목록에서 8개가 포함되는 것은 이 구문도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 구문도 의미적 분석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분석 가능한 VNICs²⁶이다. 다른 하나는 분석이 불가능한 VNICs이다. 전자는 부분적인 관용구이다. 후자는 완전한 관용구이다. 피험자들이 선택한 8개는 모두 분석 가능한 VNICs로 확인되었다.

기타에 들어가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피험자들은 12개를 선택하였다. 12개의 표현을 다음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5
기타 분류 및 분석(동사)

	관용적 성격	반복적 성격	기타	합계
표현 개수	7	4	1	12

관용적 성격은 기능적 항목을 접목하여 쉽게 명칭을 정했다. 피험자들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면, 권유, 명령, 진술 등과 같은 명칭이 관용적 성격과 어울렸다²⁷. 반복적 성격은 관용적 성질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never to return’이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기타에는 성경적 표현과 관련 있는 것을 포함시켰다.

3. 세 번째 분석: Prepositional MWEs

Prepositional MWEs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한정사가 없는 전치사 구(PP-Ds)와 복잡한 전치사로 분리가 된다. 피험자들이 선택한 62개 표현 중 13개(21%)가 전치사와 관련되었다. 전치사표현들이 Baldwin과 Kim(2010)의 틀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전치사 표현 분석

	PP-Ds	Complex Prepositions	기타	합계
표현 개수 (%)	2 (15%)	3 (23%)	8 (62%)	13 (100%)

²⁶ 동사-명사 관용적 결합체라는 용어가 길어서 VNICs로 사용할 것이다.

²⁷ 이에 대한 참고는 Nattinger와 DeCarrico(1992/2014)의 3장을 이용하였다.

전치사 부분에서 기타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타 영역은 13중 8개로 62%를 나타냈다. 기타 부분이 50%를 넘기 때문에, Baldwin과 Kim(2010)의 틀로 Prepositional MWEs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타 영역만을 별도로 살펴보았다.

표 7
기타 분류 및 분석(전치사)

	반고정 전치사표현	고정 전치사표현	기타	합계
표현 개수	4	2	2	8

표 7에 나타난 두 가지 전치사표현이 있다. 반고정 전치사표현과 고정 전치사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n our hour of need → 고정(in) + 반고정(소유격 대명사) + 고정(hour) + 고정(of) + 고정(need) → semi-fixed prepositional MWE
- to the ground → 고정(to) + 고정(the) + 고정(ground) → fixed prepositional MWE

기타 항목에는 2개 표현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로 ‘for himself’이다. 이 표현은 부사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땅한 항목을 정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By your name’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의례적인 말이다. 그래서 이곳에 있을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타로 처리를 했다.

4. 네 번째 분석: 기타

이미 표 5와 표 7에서 기타에 들어가는 형태들을 위한 잠정적인 항목을 정했다. 그래서 네 번째 분석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기타에 속한 개수가 16개(26%)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 형태들을 분석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기타 분석

	문장 단위	빈도수 높은 단위	기타	합계
표현 개수(%)	8 (50%)	8 (50%)	0 (0%)	16 (100%)

성경과 관련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선지자(특히, Jeremiah와 David)들과 왕의 대화가 많았다. 그래서 문장 단위의 MWEs가 자주 등장한다(예, Bauer,

2019, pp. 59-60). 예를 들면, 랍비가 예레미야(Jeremiah)가 쓴 글을 읽는 장면에서 “all will be well”, 즉 “만사가 형통하리라”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8개가 나온다. 그러나 Baldwin과 Kim(2010)의 틀에 넣을 곳이 없다. 그래서 피험자들에게 문장 단위마다 문장이 갖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름을 만들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Nattinger와 DeCarrico(2014)는 MWEs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피험자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였다. 기능적인 소개는 Bauer(201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다음 항목은 빈도수 높은 단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문장보다는 짧지만, 피험자들이 평소 학습에서 자주 보던 형태들이다. 이러한 형태들도 어떤 항목에도 포함할 수 없어서 별도로 분리하였다. 이것은 표 5에서 ‘반복적인 성격’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5. 다섯 번째 분석: Try Again

네 번의 분석과정을 경험하면서, 피험자들은 어느 정도 MWEs에 대하여 익숙해졌다. 명사로 시작하는 MWEs, 동사로 시작하는 MWEs, 그리고 전치사로 시작하는 MWEs를 알게 되었다. 이 외에 속하는 형태들은 문장 단위와 빈도수 높은 단위라는 항목에 넣을 수 있게 지도하였다. MWEs는 상당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험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전 활동들을 통하여 피험자들은 어느 정도는 MWEs를 식별하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처음에는 MWEs에 대한 자각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MWEs를 찾는 활동을 하였다. 이번에는 같은 대본을 MWEs 자각력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식별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Try Again 분석

	N MWEs	V MWEs	P MWEs	F1	F2	I	B	합계
표현 개수	4 (Nominal Compound) 3 (Proper Name) ²⁸	1 (Phrasal Verb)	1 (PP-Ds)	1	4	1	4	19

N=Nominal, V=Verbal, P=Prepositional, F1=Functional, F2=Figurative, I=Idiom, B=Biblical

²⁸ ‘Proper name’에 대해 Baldwin 과 Kim(2010)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auer(2019)는 ‘N + N’의 형태로 간주를 하고 있어서 Nominal MWEs 에 포함시켰다.

첫 번째 활동에서 피험자들은 62개 MWEs를 찾았다. 두 번째 활동에서 피험자들은 처음보다 19개 증가한 MWEs를 찾았다. 또한, 항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Nominal MWEs는 이전에 전혀 없었다. 그러나 두 번째 활동을 하면서, 7개를 발견하였다. Nominal compound는 모두 ‘adjective+noun’ 형태였다. 처음에는 피험자들이 Nominal MWEs에 대한 개념을 몰랐다. MWEs의 식별법을 배운 후, 이에 대한 자각력이 생기고 7개나 되는 형태들을 발견한 것이다. Verbal MWEs와 Prepositional MWEs는 각각 한 개씩 발견하였다. 이것은 지난번에 놓쳤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확인한 정도일 것이다. 즉, Verbal과 Prepositional에 대한 자각력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항목들은 Baldwin과 Kim(2010)의 틀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다. Bauer(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항목 명칭을 정했다. 이 명칭들은 피험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생각해 낸 것이다.

여기서 피험자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 놀라운 것은 ‘figurative’ 항목이다. 피험자들이 발견한 표현은 “God is bringing disaster from Babylon”과 “Is this city sealed?”이다. 피험자들은 ‘disaster’가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바빌론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가를 언급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뜻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Sealed’도 도시는 풀을 사용하여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다.

마지막의 ‘biblical’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묶어 놓았다. 앞에서 ‘by your name’이라는 표현을 피험자들이 발견한 적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정리하면, MWEs 식별법을 학습한 후, 피험자들은 새로운 것들이 보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MWEs가 19개 증가했다. 이 중에서 ‘Nominal MWEs’와 ‘figurative’, 그리고 ‘biblical’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였다. 그리고 Baldwin과 Kim(2010)의 틀에 넣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Bauer(2019)의 ‘functional categories’에 넣도록 지도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험자들의 자각력이 더 좋아진 것으로 보였다. 또한, 기능적인 것이 의미와 관련이 있어도 피험자들에게 쉽게 느껴진 것으로 사료된다.

6. 인터뷰 결과 분석

피험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교실에서 MWEs를 가르칠 때, 필수적인 절차이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좋아하는 표현을 고르라는 활동은 MWEs를 배우는데 필요한 활동인가?
- 2) MWEs의 식별법이 도움이 되었는가?

- 3) MWEs 활동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는가?
- 4) 이번 활동에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인터뷰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피험자들의 의견들을 다음과 같다.

MWEs가 대본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에 깜짝 놀랐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던 경험이다. 그렇지만 식별법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과 영어학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MWEs도 단어를 외우듯이 많이 머리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많이 알아 두면 말하기와 쓰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활동이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 유익한 것으로 보인다. (피험자 A)

당연히 필요한 활동이다. 이 활동 덕분에 MWEs를 식별하는 데 유익했기 때문이다. 나는 식별법 덕분에 MWEs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여기저기 MWEs가 보이니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목표가 생긴 것 같다. 이 활동에서 배운 것이 너무 많다. 놀랍게도 문법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도 발전되는 것 같다. 비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활동을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피험자 B)

피험자 A와 B는 식별법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피험자 A는 선호하는 표현을 고르는 것만으로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험자 B는 식별법에서 영어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 식별법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 다른 의견이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MWEs를 배우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피험자들은 선호하는 표현을 적었다. MWEs 식별법을 배우고 난 후, MWEs를 19개 더 찾았다. 그리고 MWEs를 다시 찾는 활동을 하면서, ‘figurative category’에 들어가는 MWEs를 발견했다. 이것들 통하여 피험자들에게 MWEs에 대한 자각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교실에서 학습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사는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언어발달에 필요한 MWEs를 가르치기 위하여 읽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영화를 사용한 이유는 이야기로 구성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는 시각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영화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는 대본읽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영화를 통한 학습을 읽기의 한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화를 통한 학습은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피험자들에게 선호하는 표현들을 찾아보고 이를 표로 만들라고 하였을 때, 상급자인 피험자들에게 이 활동이 부담을 주거나 낯선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험자들은 총 62개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 표현들은 피험자들이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여 선택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서 피험자들에게 MWEs 식별법을 알려주고, 다시 대본을 읽고, MWEs를 찾게 하였다. 피험자들은 19개 표현을 더 찾아냈었다. 이 수치는 피험자들에게 MWEs에 대한 자각력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사료된다.

피험자들은 MWEs 식별법에서 형태를 식별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MWEs를 식별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이해가 빠르기 때문일 것이라 추론했다. 기능적인 접근법을 배운 후, 피험자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피험자들이 비유적인 표현을 보고, 그것이 MWEs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행위는 피험자들에게 언어를 명시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눈을 키워주었다고 판단된다. 즉, 언어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영화를 보면서 내용을 감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지만, 피험자들은 영화 대본에서 사용된 발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피험자들에게 MWEs에 대한 자각력이 생겼다고 확신한다. 다만, 피험자들의 영어 실력이 상급에 속하기 때문에 중급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미치지는 영향에 대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중급 혹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MWEs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WEs를 학습하는데 영화는 적절한 교재임을 강조하고 싶다. 영화는 다양한 MWEs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높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재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영화를 통한 MWEs 학습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Arnon, I., & Christiansen, M. H. (2017). The role of multiword building blocks in explaining L1-L2 differences. *Topics in Cognitive Science*, 9(3), 621-636. doi:10.1111/tops.12271
- Baldwin, T. J. (2005). Looking for prepositional verbs in corpus data. In A. Villavicencio & V. Kordoni (Eds.), *Proceedings of the 2nd ACL-SIGSEM Workshop on the Linguistic Dimensions of Prepositions and Their U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 Formalisms and Applications* (pp. 115-126). Colchester, UK: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Baldwin, T. J., Beavers, J., van der Beek, L., Bond, F., Flickinger, D., & Sag, I. A. (2006). In search of a systematic treatment of determinerless PPs. In P. Saint-Dizier (Ed.), *Computational linguistics dimensions of the syntax and semantics of prepositions* (pp. 163-179).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 Baldwin, T. J., & Kim, S. N. (2010). Multiword expressions. In N. Indurkha & F. J. Damerau (Eds.),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pp. 267-292). Boca Rayton, FL: CRC Press.
- Bauer, L. (2019). Compounds and multi-word expressions in English. In B. Schlücker (Ed.), *Complex lexical units: Compounds and multi-word expressions* (pp. 45-68). Berlin/Boston: de Gruyter Mouton.
- Biber, D., Conrad, S., & Cortes, V. (2004). If you look at ...: Lexical bundles in university teaching and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25(3), 371-405.
- Butt, M. J. (2010). The light verb jungle: Still hacking away. In M. Amberber, B. Baker, & M. Harvey (Eds.), *Complex predicates: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on event structure* (pp. 48-7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712234.004
- Calzolari, N., Fillmore, C. J., Grishman, R., Ide, N., Lenci, A., MacLeod, C., & Zampolli, A. (2002). Towards best practice for multiword expressions in computational lexicons. In M. Rodriguez & C. Araujo (Eds.),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 '02)* (pp. 1934-1940). Las Palmas, de Gran Canaria, Spain: European Language Resource Association.
- Corrigan, R., Moravcsik, E. A., Ouali, Ho., & Wheatley, K. M. (Eds.). (2009a). *Formulaic language: Distribution and historical change* (Vol. 1).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 Corrigan, R., Moravcsik, E. A., Ouali, Ho., & Wheatley, K. M. (Eds.). (2009b). *Formulaic language: Acquisition, loss, psychological reality, and functional explanation* (Vol. 2).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 Cowie, A. P. (1998). *Phraseology: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rman, B., & Warren, B. (2000). The idiom principle and the open choice principle. *Text*, 20(1), 29-62.
- ETS. (n.d.). Correlation Table. Retrieved from <https://www.ca-institute.com/docs/Daniela%20Muresan/TOEIC+L&R+Descriptors-MAR089-LR.pdf>

- Fazly, A., Cook, P., & Stevenson, S. (2009). Unsupervised type and token identifica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Computational Linguistics*, 35(1), 61-103. <https://doi.org/10.1162/coli.08-010-R1-07-048>
- Fellbaum, C. (2011). Idioms and collocation. In M. Claudia, H. von Klaus, & P. Paul (Eds.), *Seman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meaning* (pp. 441-456). Berlin, Germany: de Gruyter Mouton.
- Foster, P. (2001). Rules and routines: A consideration of their role in the task-based language production of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In M. Bygate, P. Skehan, & M. Swain (Eds.), *Researching pedagogic tasks: Second language learning, teaching, and testing* (pp. 75-93). Harlow, UK: Longman.
- Gries, S. T. (2008). Phraseology and linguistic theory: A brief survey. In S. Granger & F. Meunier (Eds.), *Phraseology: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3-25).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 Griffin, G. (Creator). (1975-2019). *Wheel of fortune* [Television series]. New York, NY: CBS Television Distribution.
- Hüning, M., & Schlücker, B. (2015). Multi-word expressions. In P. O. Müller, I. Ohnheiser, S. Olsen, & F. Rainer (Eds.), *Word-formation: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languages of Europe, vol. 1* (pp. 450-467). Berlin, Germany: de Gruyter Mouton.
- Jackendoff, R. (1997).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Cambridge, MA: MIT Press.
- Jespersen, O. (1965).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VI-Morpholog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Kerz, E., Heilmann, A., & Neumann, S. (2019). L2 processing advantages of multiword sequences: Evidence from eye-tracking. In A. Savary, C. Escartin, F. Bond, J. Mitrović, & V. Mititelu (Eds.), *Proceedings of the Joint Workshop on Multiword Expressions and WordNet (MWE-WN 2019)* (pp. 60-69). Florence, Italy: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doi:10.18653/v1/W19-5108
- Laporte, E. (2018). Choosing features for classifying multiword expressions. In M. Sailer & S. Markantonatou (Eds.), *Multiword expressions: Insights from a multi-lingual perspective* (pp. 143-186). Berlin, Germany: Language Science Press. doi:10.5281/zenodo.1182597
- Nattinger, J. R., & DeCarrico, J. S. (1992/2014).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berg, G., Sag, I. A., & Wasow, T. (1994). Idioms. *Language*, 70(3), 491-538. doi:10.1353/lan.1994.0007
- Paquot, M., & Granger, S. C. (2012). Formulaic language in learner corpora.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2, 130-149. doi:10.1017/S0267190512000098

- Reece, C. (Director). (2013). Survival [Television series episode]. In R. Downey & M. Burnett (Producers), *The Bible*. Los Angeles, CA: LightWorkers Media.
- Sag, I. A., Baldwin, T., Bond, F., Copestake, A., & Flickinger, D. (2002). Multiword expressions: A pain in the neck for NLP. In A. Gelbukh (Ed.),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ext Processing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CIC Ling-2002)* (pp.1-15). Berlin, Germany: Springer.
- Shomoossi, N., & Shomoossi, A. (2012). A review of light verb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Persian complex predicates. *Acta Linguistica*, 6(2), 3-12.
- Siyanova-Chanturia, A. (2017). Research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multi-word expressions. *Language Teaching Research*, 21(3), 289-297. doi:10.1177/1362168817706842
- Tan, Y. F., Kan, M.-Y., & Cui, H. (2006). Extending Corpus-based identification of light verb constructions using a supervised learning framework. In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Multi-Word-Expressions in a Multilingual Context (EACL-2006)* (pp. 49-56). Trento, Italy: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Retrieved from <https://www.aclweb.org/anthology/volumes/W06-24/>
- Tanabe, T., Takahashi, M., & Shudo, K. (2014). A lexicon of multiword expressions for linguistically precise, wide-coverag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mputer Speech and Language*, 28(6), 1317-1339.
- Trawinski, B., Sailer, M., & Soehn, J.-P. (2006). Combinatorial aspects of collocational prepositional phrases. In P. Saint-Dizier (Ed.), *Computational linguistics dimensions of the syntax and semantics of prepositions* (pp. 181-196). Dordrecht, the Netherlands: Springer.
- Wahl, A., & Gries, S. Th. (2018). Multi-word expressions: A novel computational approach to their bottom-up statistical extraction. In P. Cantos-Gómez & M. Almela-Sánchez (Eds.), *Lexical collocation analysis: Advances and applications* (pp. 85-109). Cham, Switzerland: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92582-0-5>
- Wheel of Fortune (American game show). (n.d.). In *Wikipedia*.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Wheel_of_Fortune_\(American_game_show\)](https://en.wikipedia.org/wiki/Wheel_of_Fortune_(American_game_show))
- Wray, A. (2000). Formulaic sequence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Principle and practice. *Applied Linguistics*, 21(4), 463-489.
- Wray, A. (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ray, A. (2013). Formulaic language. *Language Teaching*, 46(3), 316-334. doi:10.1017/S0261444813000013

부록

피험자들이 찾아낸 표현들

1. [Zedekiah] owes allegiance to Babylon. → 충성할 의무가 있다
2. Place yourself under the yoke of Babylon → ~의 지배하에(Jeremiah가 Zedekiah에게 하는 말)
3. How dare you question → 어떻게 감히 당신이(람비가 Jeremiah에게 하는 말)
4. Take aim → 정조준하라(Nebuchadnezzar 부하들이 활을 Zedekiah 성 안으로 쏘면서 하는 말)
5. Put the fire out → 불을 꺼라
6. Will you not speak for us in our hour of need? → 정말 필요할 때(람비가 Jeremiah에게 하는 말)
7. all will be well → 만사형통 하리라(람비가 Jeremiah가 쓴 글을 읽는 중)
8. Look out there → 밖을 보라(Jeremiah가 램비에게 하는 말)
9. Stand together → 서로 뭉쳐라(성문을 안 열어 주려고 성안의 사람들이 하는 말)
10. Help yourselves → 마음대로 하거라(Nebuchadnezzar가 부하들에게 하는 말)
11. Make them pay → 대가를 치루게 해 주거라(Nebuchadnezzar가 부하들에게 하는 말)
12. Burn this temple to the ground → 철저히(네부카드네צר 부대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
13. The temple's on fire → 불타고 있다.
14. Everything we fought for is lost → ~을 위해서 싸웠다(Jeremiah가 떠나면서 하는 말)
15. the Jewish people have struggled for this promised land → ~을 쟁취하기 위해 힘들게 버티다
16. The Jewish people flee for their lives → 필사적으로 달아나다.
17. Take them alive → 산채로 잡아라(Daniel을 보고 Nebuchadnezzar 부하들이 하는 말)
18. There's a price for betrayal → ~에 대한 대가가 있다(Nebuchadnezzar가 부하들에게 하는 말)
19. The Jewish people are forced into exile → 강제로 추방당하다
20. He heads to Egypt never to return →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Jeremiah를 일컫는 말)
21. On your feet! → 일어서라
22. All right → 쓰러진 마차를 세우려고 일종의 동조를 구하는 말.
23. You're supposed to be 'wise men' → ~으로 알고 있었는데(Nebuchadnezzar가 하는 말)
24. No one here can read your mind → 마음을 읽다(Daniel이 왕에게 하는 말)
25. What use are any of you? → 너희들은 어떤 용도가 있는가?(왕이 예지자들에게 하는 말)
26. Its head made of gold → 만들어지다(Daniel이 왕에게 하는 말)
27. smashing it to pieces → 박살을 내면서(Daniel이 왕에게 하는 말)
28. In the future → 미래에
29. all the world → 전세계

30. reign over → 통치하다
31. one day → 미래 언젠가
32. in the meantime → 그 사이에
33. (we) bow our heads → 우리 머리를 숙이라?(Azariah가 Nebuchadnezzar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어이없어 하는 말)
34. As long as we're in the king's court → ~하는 한(Daniel이 Azariah에게 참으라고 하는 말)
35. With all our hearts we follow you → 진심으로(Azariah가 신에게 기도하는 말)
36. What's wrong with them? → 저 친구들 왜 그래?(Nebuchadnezzar가 Daniel에게 묻는 말)
37. I assure you, sire → 틀림없이(Daniel이 Nebuchadnezzar의 질문에 답변하는 말)
38. they will serve you faithfully all their lives → 평생을 두고(Daniel이 Nebuchadnezzar에게)
39. what do we do with it? → (저것을) 어떻게 한다? (Nebuchadnezzar의 수사학적인 질문)
40. We put it into the fire → 불에 넣어라(Nebuchadnezzar가 Azariah와 친구들을 화형을 시킴)
- 41-42. They will turn back in shame → 부끄러워서 돌아설 것이다(Daniel이 기도하는 말)
43. Far from allowing their faith to weaken in exile → (그들의 믿음이 추방된 곳이라고) 약해지기는 커녕(Narration)
- 44-45. the only man who can set them free has lost his mind →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줄 유일한 사람이 미쳐 버렸다. (Narration, Nebuchadnezzar를 일컫는 말)
46. Now we are as trapped as you → 우리도 당신처럼 갇힌 상태다(Daniel이 Nebuchadnezzar에게 물을 주며 하는 말)
47. Let them know we've arrived → 그들에게 알려라(페르시아 왕 Cyrus가 부하들에게 하는 말)
48. they don't stand a chance → 가능성이 있다.(Narration)
49. They let Cyrus in without a fight → 들어오게 하다(Narration)
50. Here is a king whose right hand I take hold of → 쥐다(Daniel이 Isaiah의 말을 인용)
51. But no one has ever died of flattery → ~으로 죽다(Cyrus가 Daniel에게 하는 말)
52. Yet he hangs on Daniel's every word → 꼭 붙잡다(Daniel과 반대파가 되는 지식인이 하는 말)
53. like he's lost the power to think for himself → 스스로(지식인이 계속 하는 말)
54. I cannot go back on my word → 약속을 어기다(Cyrus가 지식인에게 하는 말)
55. which means they need you out of their way → (뜻인 즉 그들이 네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지(Azariah가 Daniel에게 하는 말)
56. But I do know I can't live long without praying to God → 오래 살다(Daniel이 Azariah에게 하는 말)
57. Save me, O God, by your name → 당신의 이름으로(Daniel의 기도)
58. Have mercy on me → 불쌍히 여기소서(Daniel의 기도)
59.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 ~에 따라서(Daniel의 기도)
60. Daniel is arrested and sentenced to death → 사형선고를 받다(Narration)

61. Please God I'm not too late → 간절히 바라오니(Cyrus가 Daniel이 사자에 잡혀 먹혔는지 보러 가면서)
62. Throw him in with the lions → (사자와) 운명을 같이 하게 하라(Cyrus가 그 지식인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지시하며)

Applicable level: college

Keywords: multi-word expressions, MWEs learning, language awareness, idiom, movie,

The Bible

김영광

강의전담교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양과정학부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도서관 409호

E-mail: glory1130@acts.ac.kr

Received: January 11, 2021

Revised version: February 14, 2021

Accepted: February 22, 2021